

근본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悟因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자등명自燈明, 스스로를 믿고 불을 밝히라(2부)

| 자명 | 오인희 편집부 인터뷰 |

자명님은 중학교 사회교사로 5년 동안 재직하셨으며 지금은 전북 부안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계십니다.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를 읽고 마음의 본질을 파악하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 두 군데 선원을 7년 넘게 다니면서 마음의 본질을 파악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미내사클럽 홈페이지에서, 깨어있기 워크숍 참가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동안 '마음의 구조'를 보지 못하고 내용에만 빠져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깨어있기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어있기를 통해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마음공부의 여러가지 개념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었구나 라는 통찰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개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체험을 더 하고자 오인회 수요일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약 1년 9개월 동안의 오인회 모임을 통해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것들을 언뜻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어있기와 오인회를 통한 통찰과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편집자주).

편집부(이하 편) 주의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주의와 믿음이 명확하게 파악되시는지요.

자명(이하 자) 믿음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살아서 축적된 감지에 강하게 동일시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 것이요. 예를 들면 전에는 '대학 나와서 군대도 갔다 왔으면 자기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깔려있지만. 요새 그렇게 많은 백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가서 등집이라도 저야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젊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래 물론 능력이 있어서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가족도 거느리고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살 권리가 있어요. 꼭 멋있고 폼나게 안 해도요. 왜냐하면 먹고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대수롭게 보지 않는 그런 걸 해서라도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라도요. 그전에는 ‘그건 사는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바뀌었어요.

전 그런 것을 강한 신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 직업이 없으면 부모에게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받아야죠. 부모가 30만원 밖에 줄 수 없으면 30만원으로 그냥 살고, 20만원 밖에 줄 수 없다면 20만원 안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휴,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편 어떻게 그런 생각이 없어지셨죠.

자 집착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 지위에 대한 집착 등이요. 물론 다 은퇴해서 물러나는 입장이지만. 전에는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어’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런 것으로 평가했던 거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편 그것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자 그것이 저의 일종의 신념적인 열개고, 저를 이루고 있었던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믿음이 적어졌죠.



편 적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군요.

자 없어진 것도 있고, 남아있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신 거네요.

자 네. 그래도 아직 감정적으로 그것과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그런 건 있어요.

편 그럼 믿음과 신념을 파악하는 것이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자 ‘사회적인 지위, 물질적인 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괜찮구나’라고 느낀 후로는 입은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적어졌죠. 아울러 저도 입는 것에 대한 부분이 편해졌어요. 저는 소탈한 편이라, 어디를 가도 제가 입는 그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저녁 모임에 최고급 호텔에 갈 일이 있을 때 제 옷이 적당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누추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하는 염려 같은 게 없어졌어요. 저녁에 비싼 호텔에 식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옛날 알던 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할까요.

편 그렇군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자 감정이라는 것에는 밀치고 당기는 것이 있는데요. 감정의 일차적인 것은 심정적인 거예요. ‘싫어’, ‘좋아’, ‘그건 안 해’라든지. 그 다음에는 개념적인 것인데요. 어떤 호불호를 선택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 거리를 뒹요. 예를

들면 제가 싫어하는 시누이가 있어요. 하하. 보통 이 분이 오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건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걸 왜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등등. 그런 것이 너무 싫었어요. 시누이가 집에 온다고 하면 ‘어휴, 반갑지도 않은데 왜 오는 것िया?’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좀 거리를 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시누이가 집에 와서 방에 앉아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를 가만 느껴보니까 제가 시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싫어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고 기분 나쁘게 굴고, 입바른 소리를 잘 하고 해서 싫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를 보고 있는 나를 느껴보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 자명님이 시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자 네. 바로 그 순간에는. 그 분을 마주보고 앉아서 초점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나를 보고 있어봤어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전에는 초점이 그분 쪽으로 가서 ‘아니, 말을 무슨 그 따위로 하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엔 초점이 저에게 와 있었지요. 그랬더니 싫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생각으로 내가 싫어한다고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초점을 저한테로 돌려요. 제가 제 느낌을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나.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미움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한테 초점을 안 줘도 그다지 밉지가 않았어요. 그건 그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 사람이 미운 소리 하는 것에 같이 춤을 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엔 우리 아저씨보고 ‘누이 오지 말라 그래’ 이런 소리도 했었거든요. 또 전에는 내가 싫어하니까 도리어 뭘 막 주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떡도 가져갈래요? 김치도 가져갈래요? 마늘도 드릴까요? 이런 소리를 했던 거죠.

편 미워하면 안 주게 될 텐데 왜 더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자 눈속임이라고 할까, 약은 피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게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줄 게 없더라고요.

편 그 다음에는 안 주셨어요?

자 안 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콩 같은 거 안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었어요, 고춧가루도 좀 드릴까요?’ 하고 고춧가루도 털어주고 그래요.

편 농사를 지으시나봐요?

자 네. 텃밭이 있어서 콩 같은 건 심기가 쉬워요. 한 번 뿌리고 난 다음에 김만 한 번 매주면 돼요. 고구마 심고 그런 건 하죠.

편 그 다음부터는 시누이가 와도...

자 별로 거부감이 없이 ‘들어오세요’ 하고 맞이해요. 전에는 ‘이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왔을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심식사 하고 오셨어요?’ 하고 묻고 그쪽에서 안했다고 하면 ‘그럼 낮에 한 밥이 있는데 식사하세요’ 하고 밥을 차려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편 시누이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나요?

자 저하고 동갑인데, 우리집 아저씨가 손위라 저한테 언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언니는 참 마음이 좋아’

편 다른 분도 자명 님이 잘 해주시니까 마음이 좋다 말씀하시나봐요. 그것 말고는 일상에서 겪는 감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없나요?

자 그 전에 우리집 아저씨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있었어요. 우리

집 아저씨가 좀 꼼꼼하거든요. 일처리가 꼼꼼하고 마무리가 분명해서 그러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갖고 저를 막 공격하지요. 예를 들어 그전에는 아저씨가 ‘부엌을 왜 이렇게 더럽게 쓰고 있어?’ 그러면 제가 ‘어디가 더러워?’ 하고 화를 냈었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치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시비조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 난 좀 더러워.’ 딱 인정을 해요. 그럼 다음 말이 안 나오지요. ‘그래 난 좀 더러워, 난 좀 깽쟁이야’ 이런 식으로요. 일단 인정을 하는 거죠. 아마 제가 감정적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저희 아저씨가 반대의견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시다.’ 그래요. 그쪽 의견에 맞춰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편 남편분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반대를 하나 찬성을 하나 거기서 거기니까요. 반대를 하면 좀 시끄럽죠. ‘그냥 그렇시다’ 하면 아무래도 대강 보조를 맞추게 되고 사이 좋게 지내게 되니까요.

편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그래도 되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 우리 나이쯤 되면 양쪽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들 중요하다고 여기는 금전적인 문제도 제게는 별로 없어요. 남편과 금전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을 일찌감치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다투는 게 없어요. 그쪽에서 필요한 건 자기가 알아서 쓰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쓰고. 서로



돈이라는 걸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게끔요. 대개 다들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저희도 젊어서 그랬어요. 젊어서는 막 싸웠어요. ‘왜 당신이 더 많이 쓰냐. 내가 더 써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죠.

편 어떻게...

자 예를 들면 우리집 아저씨는 씬쌌이가 커요. 자기가 골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저에게는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 그쪽에선 또 할 말이 있어요. 저한테 가계부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쥐꼬리만 한 돈 얼마 주고 가계부가 뭐야, 가계부가. 가계부를 쓸 짬이 없어. 쓸 내용이 없어.’ 그리고선 서로 싸웠는데 지금은 그쪽도 연금이라든지 알아서 쓰고, 저는 저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알아서 쓰고 하니까, 주고받는 것이 없어졌죠. 그 문제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사는 것이 편해지더라고요.

편 그럼 옛날 같았으면 싸웠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 금전적인 것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당신 연금이 얼마 나와. 거기서는 월세가 얼마 들어왔어’ 이러면서 계속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편 왜 그러신 건가요?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각자 협의를 하신 건가요?

자 젊어서 애들 키울 때 ‘내가 더 많이 써, 당신이 더 많이 써. 쉬는 날에 골프를 왜 가’ 그랬던 것이 정말 싫었어요. 저 자신이 그런 말 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랬지요. 내 맘이 이렇게 불편한데 당신 마음은 편하게 둘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해댄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싫고 내키지 않았어요. 뭔가 좀 치사하

고. 그래서 제가 ‘하, 정말 나이 먹어서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어’ 그랬죠.

편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나요?

자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써요. 애들이 온다든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든지 어딘가에 챙겨야 한다든지요. 제 쪽의 경조사는 제가 처리하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경조사나 공과금, 재산세 그런 것을 내고요.

편 정리하자면 두 분이 그런 부분을 협의하신 건가요?

자 협의는 안 했어요. 절 보고 쓰라고 그러는데. ‘난 그건 못 써’ 그래요. 한 번도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일관성 있게 그 돈을 안 쓰면 본인이 쓰더라고요.

편 암묵적으로 정리가 된 거네요.

자 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게 참 편해요.

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명 님은 누구인가요?

자 그것이 남은 화두예요. 현상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감지로 아느냐.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가 없이 사는 그런 ‘나’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요. 전에 00선원에 가서 알고 싶던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니 알 수가 없는 건가 싶으면서도 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가 그것이에요. 그 본질을 확실히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느낀다든지 본다든지 어떤 것이라도 좋은데 말이죠.

편 그럼 알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죠?

자 그것이 보통 ‘이 뭐꼬’ 하는 그것인데... 그 ‘이 뭐꼬’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대상’이 없는 그 순간에는 물론 ‘나’도 없어요. ‘나와 대상’은 함께 나타났다 함께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지요. 그래도 그걸 아시는 분은 있잖아요. 말하자면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항상 질문해요, 월인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소금인형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와 하나 되는 것과 같다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다’고요. 소금인형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그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상도 아니므로 그에 대해 ‘나’도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물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으로는 알 수 있겠지’라고 여겨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알고 싶은 거지요.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과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면, 소금인형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되는 그런 알아챈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장기적으로 길게 잡고 있어요.

편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은 뭐죠?

자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욕구지요. 욕망, 일종의 감지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바탕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편 알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겨난’ 건가요?

자 아니요. 그건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방법으로 는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안거죠. 전과 같이 법문을 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어요. 깨어있기로 뭔가를 해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대상이 없고 나도 없고 그걸 언뜻이라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논리적

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편 보는 행위는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지요. 다만 그걸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채고 싶다는 거예요.

편 ‘누가’ 알아채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채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꼬리를 물면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편 나와 대상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알고’ 싶단?

자 그걸 아는 어떤 순간에, 알아채는 순간에 본인이 확실히 알 수 있대요. 그걸 안 사람이.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알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나뉘져 있다는 건데, 대상도 없고 나도 없는 그것을 알 수 있나? 하는 거죠. 그걸 다시 알려고 하면 주체가 또 생겨나고, 또 알려고 하면 주체가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 없는 거다 라고. 그래서 그 의문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지만. 나는 그 의문이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깨어있기 과정을 하고 2014년 12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갈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마지막 과제예요. 그것이 어느 때에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갈망으로 품고 있겠다는 거죠.

편 처음 깨어있기 강좌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구조를 본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조 속의 ‘나와 대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자 나와 대상은 동시에 생겨나요, 쌍으로. 내가 대상을 인지한다는 것



이 내가 있는 것을 증거하지요. 그 둘이 이원화되지 않으면 저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나’나,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걸 알아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편 마지막 본질이 있고 그걸 알고자 하는 자명 님이 있고...

자 체계는 아직도 그것이 숙제예요.

편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나’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는 어떤 관찰자가 있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나’도 대상이 되죠. 대상이면서 주체인 것이죠.

편 대상인데 주체가 되었다?

자 예, 하나가 둘이 되고, 그중 하나는 계속 주체인거죠. 다시 또 그럼 그건 뭘까 하고, 자문해봐요.

편 ‘나’가 둘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주체로서의 나와 대상으로서의 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둘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나’이지요. 그러니 지금의 ‘나’라는 것은 현상적인 ‘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구조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 ‘아하!’ 그러지가 않아요.

편 실감이 안 난다는 건가요?

자 그렇죠.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체험을 너무 그렇게 붙잡지 않아도 되잖아? 하고 자문하기도 하지만 다음 순간에 ‘아니,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편 바로 ‘지금’,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 알고 싶어 하는 그것...(웃음) ‘알고 싶다’라는 나의 기본적인 욕망, 그것이 ‘나’지요. 마음의 대상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것이 ‘아!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더 찾을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편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느껴보셨으면,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 아닐까 이런 의심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요. 이것도 믿음이죠. 다만, 제가 체험에 너무 집착해서 그렇다고 수요 오인회 할 때마다 들어요. 결국은 마지막 문제가 그걸로 귀착이 되죠. 그래도 그것이 전 ‘아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편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겠다 하는 강한 열망이랄까, 추구심, 다르게 말하면 집착이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 아닐까요?

자 맞아요. 믿음이에요.

편 어떻게 보면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알아채셨나요? 그건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혹시 여기에 동일시되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셨나요?

자 아니, 내가 의심한 건 아니고, 월인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편 그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월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봐지지는 않고 ‘그래도 난 알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죠.

편 ‘그건 알고 싶어’라는 마음, 강한 열망, 유혹이 생기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하고 탐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탐구를 하려고 하고 있죠. 남은 인생 동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거든요.

편 알겠습니다. 깨어있기 수업과 수요 오인회 수업을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나 일상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자 저는 여자대학을 나와서 동성끼리 참 잘 지내요. 여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교하고 그 사람을 앞지르려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좀 내성적인 데다가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청소 좀 깨끗이 해라. 네가 끓인 된장찌개는 맛이 없다.’ 이런 소리요. 그런데 깨어있기 수업을 듣고 나서 달라졌어요. 난 그것이 언제나 ‘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남편까지 포함해서 ‘모두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라고 보는 관점이 없어졌죠. 즉, 들려오는 소리는 밖에서 온다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다음엔 조금 다르게 끓여볼게!”라고 말해요. 일단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갯살을 넣어볼까, 고기를 넣어볼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다음번에 조갯살을 사온다든지, 물론 생각이 나면 하겠지만, 그것을 꼭 유념하는 것은 아니에요.

편 편하게 사시는군요!

자 네, 제가 그래요.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그래요. “언니는 아들하고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나는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할 이야기가 생겨나
요. 딸하고는 물론 말이 많죠.

편 이 공부에 있어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
나요?

자 아까 그거예요. ‘그래도 그냥 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편 그것 또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요?

자 그렇죠. 그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편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인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했어요.

편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자 제가 정한 거죠.

편 본인이 정한 거죠. 남편분이 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마지막
공부에 있어서는 무엇이 다르게 느껴지신다는 건가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같아지지 않아요.

편 머리로는 정리가 돼서 이해는 되는데 아직 실감이 안 된다는 건가
요?

자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편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대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관계라고 할 수 있
으니까, 이때 대상은 ‘궁극적인 본질을 추구하려는 나’인 ‘자명’이 되
고, 궁극적인 본질을 대상으로 삼는 ‘나와 대상’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네,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편 그럼 결국 ‘구조를 파악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맞아요. 나의 현상적인 문제들은 모두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이것, 내가 그 본질



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서 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다는 말이라는 것도 그런데...

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거나 오인회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자명 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또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자 계획이라면, 궁극적 본질을 체험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과제고요. 변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울어요.

편 자고나면 배고파서 우는 애기도 많지 않나요?


자 그러기도 하지만 조금 더 커서 3~5살이 돼서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뭔가 앞이 뿌예지고 마음이 찬바람 불 듯 차가워지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편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세요?

자 그럼요.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죠. 울고 나면 어머니에게 맞아요. 애가 자고 일어나서 방긋 웃지 않고 울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혼나는 거죠. 집안 망하게 할 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울다가 멈춰요. 맞는 게 무서우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슴이 썩 하면서 그것을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쓸쓸하다고 해야 하나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깨어있기 심화 수업을 듣고 나서 모두 없어졌어요.

편 어떻게 없어진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이 또 찾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웬지 산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어요. 산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날도 마음속으로 공부하는 중에,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본질이라는 것, 그것은 모두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는 “얻는 것이 아닌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본질적인 것이란 실은 알고 보면 없음, 텅 빈 상태 같은 공이 아닐까? 그래서 뭐지 ‘알려고 애쓸 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지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씁쓸하고 비관적인 마음이 없어졌어요. 요즘 월인 선생님이 물어봐요. 요즘엔 괜찮냐고요. 그러면 ‘요새는 괜찮아요. 없어졌어요.’라고 하지요...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